

图书在版编目 (CIP) 数据

韩国语汉字词读解/徐在学等编著. —延吉: 延边大学出版社, 2011. 6

ISBN 978 - 7 - 5634 - 4182 - 2

I. ①韩… II. ①徐… III. ①朝鲜语 - 汉字 - 研究
IV. ①H552

中国版本图书馆 CIP 数据核字 (2011) 第 113379 号

韩国语汉字词读解

编著: 徐在学

责任编辑: 金美淑

封面设计: 金胜铉

出版发行: 延边大学出版社

社址: 吉林省延吉市公园路 977 号 邮编: 133002

网址: <http://www.ydcbs.com>

E-mail: ydcbs@ydcbs.com

电话: 0433 - 2732435 传真: 0433 - 2732434

发行部电话: 0433 - 2133001 传真: 0433 - 2733266

印刷: 北京中创彩色印刷有限公司

开本: 710 × 1000 毫米 1/16

印张: 35 字数: 600 千字

版次: 2011 年 8 月第 1 版

印次: 2011 年 8 月第 1 次

ISBN 978 - 7 - 5634 - 4182 - 2

定价: 55.00 元

韩国语系列教材 主编:刘银钟

编委会

主任 杨银千

委员 吴国良 徐左平 杨纪生

刘银钟 王 越 孟林华

刘训华

前 言

本《读解》是浙江越秀外国语学院韩国文化研究所为韩国语专业本科生和硕士研究生提供教学和学习用书而编写的。

本读解分为《韩汉语音对比》部分和《韩国语汉字词读解》两部分,在韩汉语音对比中与以往的单纯地以国际音标为基准的对比方法不同,通过韩汉两种语音的直接对比把外语学习中着重模仿为主的学习方法转化成从语音学角度达到理解的目的。通过韩中语音对比,理解韩汉发音中的共同点和不同点,以便正确把握发音原理和发音方法。在韩国语词汇中汉字词占有近70%,所以学习韩国语如何去读解汉字词对学好韩国语有重要的意义。本读解中对韩汉相对应的汉字词单音节的构成以及相关词进行了解释并更深刻地去理解发音的对应关系,避免了在外国语学习中死记硬背单词的现象,以读解汉字词的方法,更深刻地理解词汇的含义,从而义记韩国语汉字词并活用到学习韩国语的全过程。

本读解在编写过程中主要参考了崔熙秀教授编写的《韩汉语音对比》一书和马洪海教授编写的《汉韩语音对比练习教程》一书,为此谨向两位教授表示由衷的谢意。

本读解在编写过程中由于时间仓促和编者水平所限,还会有很多不足之处,甚至有不同的见解.诚恳希望各位学者和读者提出批评和意见。

编 者

凡 例

本书的构成及活用

本《读解》是为韩语系的学生而编写的教材。第一部分为基础理论附加内容,第二部分为《读解》内容。通过学习使学生有利于掌握韩国语和现代汉语发音的共同点和不同点,有利于掌握韩国语汉字词的结构特征,以便更深刻地理解韩国语汉字词为目的而编写的。

课堂的授课

本《读解》分为两大部分,共有 10 章 34 节组成,一个学期学习一个部分内容,每课时上一节内容。

授课目的及方式

本《读解》每一节都有思考题,使学生把握须知内容为教学目的。在授课过程中充分发挥教师的主导作用和学生的主体作用,在教师的引导下学生以自主学习的方式达到其授课目的。

目 录

머 리 말 (1)

제1부분 한국어와 한어의 어음대비
(韩国语和汉语的语音对比)

제1장 어음(语音) (2)

 제1절 어음의 성질(语音的性质) (2)

 제2절 어음 단위(语音单位) (8)

제2장 모음대비(元音对比) (16)

 제1절 개론(概论) (16)

 제2절 모음의 분류(元音的分类) (18)

 제3절 복합모음의 분류(复合元音的分类) (23)

 제4절 단모음의 발음대비(单元音的发音对比) (31)

 제5절 복합모음의 발음대비(复合元音的发音对比) (37)

제3장 자음대비(辅音对比) (42)

 제1절 자음의 개념(辅音的概念) (42)

 제2절 자음의 분류(辅音的分类) (45)

 제3절 발음대비(发音对比) (49)

 제4절 받침의 대비(韵尾的对比) (58)

제4장 음절대비(音节对比) (61)

 제1절 음절구성에 의한 대비(根据音节结构的对比) (61)

제2절 음절의 구성방식에 의한 대비(根据音节的结构方式对比) … (65)

제3절 음절의 조합규칙과 음절의 수량에 의한 대비
(根据音节的组合规则和音节数量的对比) …………… (67)

제5장 한국어 사의격조, 어조와 현대한어의 성조, 어조
(韩国语词调、语调与现代汉语声调、语调) …………… (71)

제1절 한국어 사의격조와 현대한어 성조
(韩国语词调与现代汉语声调) …………… (71)

제2절 한국어 어조와 현대한어의 어조
(韩国语语调与现代汉语的语调) …………… (74)

제6장 어음변화 대비(语音变化对比)…………… (82)

제1절 이웃하는 두 소리의 변동(两个音连接时的音变) …………… (82)

제2절 두 소리가 떨어져 있는 경우의 변동
(两个音相隔开时的音变) …………… (93)

제2부분 한국어 한자어 독해
(韩国语汉字词读解)

제1장 서론(绪论) …………… (96)

제1절 한자어 유래(汉字词由来)…………… (96)

제2절 한자어의 구성과 특성(汉字词的结构及特性) …………… (98)

제2장 중성으로 이뤄진 한자어(由中声构成的汉字词) …………… (109)

제1절 중성 ‘ㄱ, ㅋ, ㆁ, ㄷ, ㅌ’로 이뤄진 한자어
(由中声“ㄱ, ㅋ, ㆁ, ㄷ, ㅌ”构成的汉字词)…………… (109)

제2절 중성 ‘ㄲ, ㆁ, ㄱ’로 이뤄진 한자어
(由中声“ㄲ, ㆁ, ㄱ”构成的汉字词)…………… (123)

제3절 ‘ㅣ’로 시작되는 한국어 이중모음 단음절 한자어 ‘야,
여, 예, 요, 유’(以“ㅣ”起头的韩国语双元音单音节汉字
词“야, 여, 예, 요, 유”) …………… (130)

제4절 ‘ㄱ’와 ‘ㄷ’로 시작되는 한국어 이중모음 단음절 한자어
 ‘와, 왜’(由“ㄱ”和“ㄷ”起头的韩国语双元音单音节汉字词
 “와, 왜”) (141)

제5절 ‘ㅡ’로 시작되는 이중모음 단음절 한자어 ‘의’
 (由“ㅡ”起头的韩国语双元音单音节汉字词“의”) (145)

제3장 초성과 중성으로 이뤄진 한자어
 (由初声和中声构成的汉字词) (150)

제1절 초성 ‘ㄱ, ㄴ, ㄷ, ㄹ’로 이뤄진 한자어
 (由初声“ㄱ, ㄴ, ㄷ, ㄹ”构成的汉字词) (150)

제2절 초성 ‘ㅁ, ㅂ, ㅅ’로 이뤄진 한자어
 (由初声“ㅁ, ㅂ, ㅅ”构成的汉字词) (199)

제3절 초성 ‘ㅈ, ㅊ, ㅋ, ㆁ’로 이뤄진 한자어
 (由初声“ㅈ, ㅊ, ㅋ, ㆁ”构成的汉字词) (227)

제4장 종성 ‘ㄱ, ㄴ, ㄷ, ㅁ, ㅂ, ㅇ’로 이뤄진 한자어
 (由终声“ㄱ, ㄴ, ㄷ, ㅁ, ㅂ, ㅇ”构成的汉字词) (295)

제1절 종성 ‘ㄱ’로 이뤄진 한자어(由终声“ㄱ”构成的汉字词) (295)

제2절 종성 ‘ㄴ’로 이뤄진 한자어(由终声“ㄴ”构成的汉字词) (308)

제3절 종성 ‘ㄷ’로 이뤄진 한자어(由终声“ㄷ”构成的汉字词) (322)

제4절 종성 ‘ㅁ’로 이뤄진 한자어(由终声“ㅁ”构成的汉字词) (334)

제5절 종성 ‘ㅂ’로 이뤄진 한자어(由终声“ㅂ”构成的汉字词) (347)

제6절 종성 ‘ㅇ’로 이뤄진 한자어(由终声“ㅇ”构成的汉字词) (359)

부록

부록 1 한국어 한자어(韩国语汉字词) (373)

부록 2 한국어 한자성어 해석(韩国语汉字成语解释) (535)

제1장 어음(语音)

어음이란 사람들이 말을 하기 위하여 발음기관을 통해서 내는 일정한 의미를 나타내는 소리이다. 웃음소리, 울음소리, 기침소리 재채기(喷嚏) 소리 등은 비록 사람이 발음기관을 통해서 내는 소리지만 생리적 반영일 뿐 말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어음이 아니다. 어음은 발음기관의 장애, 긴장정도, 날숨(气流)의 성질과 정도에 의하여 모음과 자음으로 나뉜다. 우리가 말하는 한국어와 한어의 어음비교에서 한국어 어음은 현대한국어의 모음과 자음을 가리켜 말하며 한어의 어음은 현대한어 병음의 모음과 자음으로 이뤄진 성모와 운모를 가리켜 말한다.

제1절 어음의 성질(语音的性质)

언어란 실제적 의미에서 말하면 교제과정에서 말하는 사람의 대뇌와 듣는 사람의 대뇌를 연결시키는 과정으로서 ‘발음—전달—느낌’ 세 개 단계로 나뉜다.

첫째 단계는 말하는 사람이 대뇌를 통하여 발음기관에 지령하여 소리를 내게 하는데 이는 심리적 현상에서 생리적 현상으로 전변하는 과정이다.

두 번째 단계는 전달과정인데 물리적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말소리는 날숨을 매개(媒体)로 하여 말하는 사람으로부터 듣는 사람의 귀까지 전달한다.

세 번째 단계는 말소리가 청각기관을 통하여 듣는 사람의 대뇌에 느낌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이는 생리적 현상에서 물리적 현상으로 전변되는 과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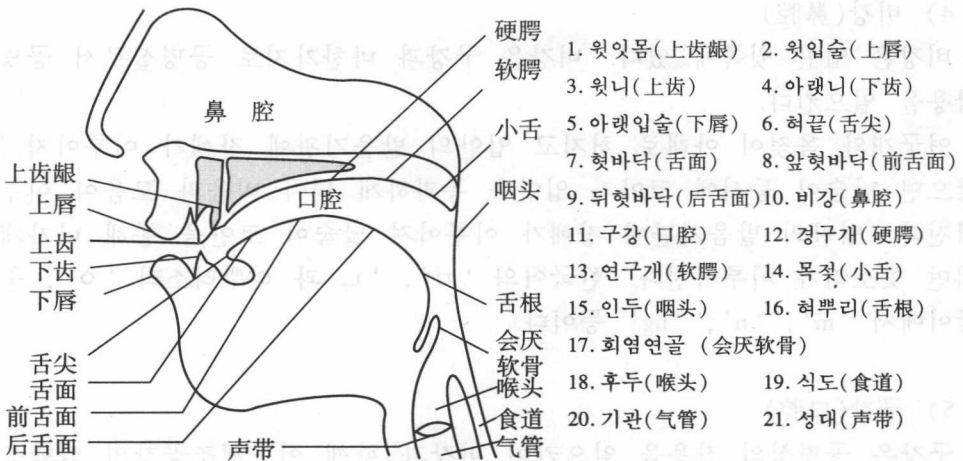
어음은 아래의 세 개 성질을 가지고 있다.

1. 어음의 생리적 성질(语音的生理性质)

어음은 사람들의 발음기관을 통해서 내는 일정한 의미를 나타내는 소리이다. 어음의 생리적 성질을 요해하고 파악하려면 먼저 발음기관에 대하여 요해가 있어야 한다.

발음기관이란 발음할 때 쓰는 모든 기관들을 가리켜 말한다. 사람들이 똑똑한 말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은 사람에게 발음기관이 있기 때문이다.

발음기관은 주로 다섯 개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발음기관 표시도(发音器官示意图)

1) 호흡기관(呼吸器官)

호흡기관에는 폐, 기관, 기관지가 속한다. 폐는 공기의 저장소로서 어음의 형성에 필요한 날숨을 공급한다. 기관지와 기관은 공기통로의 역할을 한다. 호흡기관은 발음을 위한 발동기라고 할 수 있다.

2) 후두와 성대(喉头和声带)

후두는 목 앞 한가운데 불룩하게 나온 부분이다. 성대는 후두 안에 숨어 있다. 성대를 이룬 두 조각의 얇은 근육막 사이의 통로를 성문이라고

한다. 성문이 열리기도 하고 닫기기도 한다. 성문이 열리면 날숨이 거침 없이 성문을 통과하게 되므로 성대가 진동하지 않는다. 성문이 닫기우면, 즉 날숨을 내 보낼 수 있는 정도로 성대가 접근하면 성문이 약간 열리고 성대가 진동하면서 음성을 이룬다. 요컨대 성대는 발성체이다.

3) 인두와 인두강(咽头和咽头腔)

인두는 후두의 윗쪽에 위치하고 있다. 위로는 비강과 통하고 앞으로는 구강과 통한다. 인두의 빈 곳을 인두강이라고 한다. 인두강은 공명실로서 모음을 발음할 때 공명작용을 일으킨다.

4) 비강(鼻腔)

비강은 입안 윗쪽에 있다. 비강은 구강과 마찬가지로 공명실로서 공명작용을 일으킨다.

연구개와 목젓이 아래로 처지고 입안의 발음기관에 장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날숨이 동시에 코안과 입안을 통과하게 되어 비음과 모음이 이루어진다. 입안의 발음기관에 장애가 이루어져 날숨이 코안을 통해 나가게 되면 콧소리가 이루어진다. 한국어의 ‘ㄹ’, ‘ㄴ’과 혀뿌리소리 ‘ㅇ’, 중국어에서 ‘m’, ‘n’, ‘ng’ 등이다.

5) 구강(口腔)

구강은 공명실의 작용을 일으키며 비강과 함께 어음제조공장의 역할을 한다.

구강은 입술, 이, 잇몸, 구개, 혀, 목젓 등을 포괄한다.

입술은 아랫입술과 윗입술로 나뉘는데 두 입술을 맞대었다 열게 되면 양순음이 생긴다. 양순음은 입술소리라고도 한다.

이는 아랫니와 윗니가 있다. 아래위의 두 이가 접촉하거나 아랫입술에 윗니가 접근함에 따라 저애가 이루어지며 소리가 생긴다. 로어, 영어, 한어의 순치음은 윗니가 아랫입술에 접근하는 데서 생긴다.

잇몸은 이뿌리를 싸고 있는 살로 된 부분이다. 혀끝 앞부분이 잇몸에 접근함에 따라 어음이 생긴다.

구개는 경구개와 연구개로 나뉜다. 경구개는 앞천장이라고도 하며 윗잇몸 뒤쪽에 있는 부분이다. 연구개는 뒤펀장이라고 하며 경구개 뒤쪽에 있

는 연한 부분이다.

혀는 구강에서 가장 능동적이고 활약적인 조음(造音)부분이다. 여러 가지 어음은 주요하게 혀를 자유롭게 놀리는 데서 이루어진다. 혀는 혀끝, 혀엽, 혀바닥, 혀뿌리 등으로 나뉜다.

목젖은 연구개의 안쪽에 아래로 드리운 둥그스름한 살을 가리켜 말한다. 목젖은 고드름 비슷하게 생긴 것이다.

발음기관의 구조와 작용을 똑똑히 알아야만 어음을 옳게 분석 연구하고 바르게 발음을 할 수 있다.

2. 어음의 물리적 성질(语音的物理性质)

어음은 소리의 일종으로서 다른 소리와 마찬가지로 일종 물리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 어음의 물리적 성질은 주로 성학과 관계되므로 어음의 물리적 성질을 성학적 성질이라고도 한다. 어음은 주로 소리빛깔/음질(音色/音质), 소리높이(音高), 소리세기(音强), 소리길이(音长) 네 가지 요소가 있다.

1) 소리빛깔/음질(音色/音质)

소리빛깔은 음색 또는 음질이라고도 하는데 소리의 특색을 가리킨다. 소리의 빛깔이 다른 것은 발성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발성체가 다름에 따라 진동방식이 달라진다. 소리빛깔에는 두 가지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다.

(1) 발성체에 의한 소리빛깔(根据发声体的音质)

발성체가 다름에 따라 소리빛깔도 다르다. 예하면 피아노와 손풍금, 바이올린과 기타를 놓고 말하면 비록 같은 악보의 곡을 소리낸다더라도 나오는 소리빛깔은 각기 다르다. 북을 칠 때와 쇠를 칠 때 나오는 소리빛깔도 각기 다르다.

(2) 진동방식에 의한 소리빛깔(根据振动方式的音质)

성대의 진동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소리는 모음이다. 성대가 진동하지 않고 날숨이 발음기관의 각종 장애를 받으며 이루어지는 소리는 무성자음

이다. 만일 성대가 진동함과 아울러 날숨도 장애를 받으며 이루어진다면 그 소리는 혼합음인데 유성자음이 그 부류에 속한다. 예하면 한국어에서 콧소리 ‘ㄱ, ㄴ, ㅇ’과 한어에서 코소리 ‘m, n, ng’ 등은 혼합음이다.

2) 소리높이(音高)

소리높이는 소리의 높낮이를 가리킨다. 말소리의 높이는 성대의 길이, 긴장정도두께에 의하여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여성과 어린이의 소리는 그들의 성대가 비교적 짧고 긴장되고 얇으므로 높다. 그러나 남성들의 소리는 그들의 성대가 길고 두꺼우므로 낮다.

소리의 높이는 일부 언어에 있어서 의미를 구별하는 역할을 논다. 예를 들면 한어의 성조는 소리의 고저승강의 변화에 의하여 나타난다. 예:

妈 mā(어미 마) 麻 má(삼 마, 참깨 마, 마비할 마)

马 mǎ(말 마) 骂 mà(욕할 마)

여기에서 같은 음소로 이루어진 단어 ‘ma’는 성조가 다름에 따라 같지 않은 의미를 나타내는 네 개 말마디로 되어 있다.

소리의 높이는 고저역점에서 쓰인다. 한국어에서도 음절의 고저역점이 나타난다. 예:

사람(人) 착하다(善良) 무섭다(害怕) 배추(白菜)

3) 소리세기(音强)

소리세기는 소리의 강약을 말한다. 소리세기는 발성체의 진폭이 크고 작음에 의하여 결정된다. 소리의 세기는 언어에서 경성과 강약역점, 어조의 상승과 하강을 구별하는 데 쓰인다. 한어의 경성은 보통음절보다 경하게 약하게 발음한다. 예:

报仇 bào chóu(보복하다, 원수를 갚다, 복수하다) — 보통음절

报酬 bào chou(보수, 수당, 사례금) — 경성음절

东西 dōng xī(동쪽과 서쪽) — 보통음절

东西 dōng xi(사물, 물건, 음식) — 경성음절

4) 소리길이(音长)

소리길이는 소리의 장단을 가리킨다. 소리길이는 발성체의 진동시간의 길고 짧음에 의하여 결정된다.

소리의 길이는 단어의 의미를 개변시키기도 한다.

한국어에는 비록 한어에서 나타나는 성조(声调)는 없지만 장모음과 단모음이 있어 같은 말소리라 해도 뜻이 달라진다. 예:

단모음— 눈(雪人)	장모음— 눈(眼睛)
단모음— 말(话)	장모음— 말(马)
단모음— 밤(栗)	장모음— 밤(夜)
단모음— 병(病)	장모음— 병(瓶)
단모음— 사과(道歉)	장모음— 사과(苹果)

3. 어음의 사회적 성질(语音的社会性质)

어음은 자연계의 기타의 소리와 달리 특정적 사회교제 공능을 가진 소리이다. 그러므로 어음은 생리적 성질과 물리적 성질 외에 사회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

어음의 사회적 성질은 주로 의미 전달 공능에 있다. 어음의 소리와 의미 지간에는 필연적 연계가 없다. 동일한 사물에 대해 부동한 민족은 언어의 부동한 소리로써 전달한다. 예하면 한국어에서 ‘나무’는 한어에서 ‘樹(shu)’라고 하는데 동일한 언어의 부동한 방언 역시 부동한 소리로써 동일한 의미를 전달한다. 어떤 소리로써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가 하는 것은 일정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성원들의 약속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어음의 사회적 성질은 부동한 언어의 어음체계에서도 표현된다. 한어의 어음체계에는 권설음 ‘zh, ch, sh’가 있지만 한국어에서는 권설음이 없는 반면에 거센소리가 아닌 음에는 순환소리 ‘ㄱ, ㄷ, ㅂ, ㅅ, ㅈ’와 된소리 ‘ㄲ, ㄸ, ㅃ, ㅆ, ㅉ’의 구별이 있다. 이는 한어에는 없다. 이러한 어음적 차별은 어음의 생리적 성질이나 물리적 성질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특정된 사회적 성질에서 결정된다.

사고문제



1. 발음기관은 주로 어떤 몇 가지로 나뉘는가? 그 작용을 말하라.
2. 어음이란? 어음의 성질에는 어떤 몇 가지가 있는가?

제2절 어음 단위(语音单位)

사람들이 말을 할 때 내는 소리가 상대적인 독립적 표현 단위라고 한다면 이러한 상대적인 독립적 표현 단위를 어음 단위라고 한다. 한국어에서 어음 단위는 ‘음류(音流)’, ‘음단(音段)’, ‘음절(音节)’, ‘음운(音位)’, ‘음소(音素)’ 등으로 나뉜다.

1. 음류(音流)

말을 할 때 완벽한 의미를 나타내는 한 줄기의 소리를 ‘음류’라고 한다.

예하면 ‘나는 오늘 학교에 간다(我今天上学)’는 한 줄기의 완벽한 의미를 나타내는 소리로서 음류이다. 한국어에서 음류는 의미에서나 형식에서나 문법에서의 ‘구절(句子)’과 같다. 그보다 더 큰 ‘단락(句群)’ 역시 어음이다. 그러므로 음류는 가장 큰 어음 단위라고 말할 수 있다.

2. 음단(音段)

말을 할 때 음류에서 잠시적 쉽으로 갈라낸 어음 단위를 ‘음단(音段)’이라고 한다. 예하면 ‘나는 오늘 학교에 간다’란 한 줄기의 소리는 말을 할 때 자연적으로 잠시적 쉽으로 ‘나는’, ‘오늘’, ‘학교에’, ‘간다’ 등 네 개 어음 단위로 갈라진다. 이렇게 갈라진 매개 어음 단위를 ‘음단(音